

“남은 예산 쓰고보자” 언제까지...

道, 연말 신규사업 16건 505억 편성 검토없이 ‘확보부터’...방만 운용 여전

전남도가 편성한 2011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 오고 있다. 올해가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돈을 다 쓰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내기’식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열악한 재정현편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방만하게 편성·집행하는 사례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연말 예산 밀어내기’=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1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10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신규 사업을 무더기로 편성했다. 신안군 하의면 숙박시설 건립사업

(10억)을 비롯해 ▲영암 천황사 나한전 건립(1억5000만원) ▲보성 용산관 건립(2억8700만원) ▲해남 황산 119 지역대 신축(4억2800만원) 등 1억 이상 사업만 16건(504억9900만원)에 달한다.

그나마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도 9건(28억7900만원)에 이른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편성하고, 마지막 추경안의 경우 통상 변경된 중앙사업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가감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와 전남도가 최근 부단체장 및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연말 예산을 무리하게 쓰는 ‘밀어내기’식 사업을 억제하도록 지시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분한 검토없이 ‘확보부터’=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의 방만한 예산 운용 사례를 분석, 공개했다. 쓰든 안쓰든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정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회의 일원의 생각이다.

예컨대 전남도는 ‘여수박물관 수증로봇(거북선) 제작을 위한 설계용역’을 위해 4억5000만원을 타놓았다가 국내 로봇제작 기술이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제작비용도 30억원 가량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전남도는 또 아동급식지원 사업비 중 17억7400만원을 쓰지 못하겠다며 감액, 편성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대상자 숫자(2만4931명→1만8706명)가 감소해 삭감한 것으로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119 구급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받았음에도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가 하면, 남평119안전센터와 능주119지역대도 준공된 지 3~4년이 됐는데도 여지껏 구입하지 못한 장비 구입비 등을 예산안에 편성,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 소방학교 신청사 개청식이 20일 오전 광산구 소촌동 소방학교에서 열렸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청사에 전시된 교육 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소방학교 신청사 개청

광주소방학교가 20일 광산구 소촌동 소방종합훈련장 부지에서 개청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09년 8월 착공해 2년3개월여 만에 완공한 소방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564㎡ 규모로 최첨단 강의실과 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광주소방학교는 광주와 전남·북, 제주권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도록 소방안전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10월 이전 나로호 3차 발사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의 세 번째 도진이 내년 10월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나로호 발사 한·러 계약당사자, 즉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3차 발사 추진에 앞서 기술 협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정부 차원의 ‘한·러 공동조사단’에서 합의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나로호 2차 발사의 잠재적 실패 원인을 개선·보완하는 동시에 1차 발사에서 문제가 됐던 페어링(위성보호용 덮개) 시스템도 손보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2단부 비행중단 시스템(FTS)의 화학 장치를 제거하고 고전압 기폭장치를 저전압으로 바꾸기로 했다. FTS(Fight Termination System)는 발사체의 비행 궤적이 잘못돼 민가 피해 등 문제가 예상될 경우 자폭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페어링 분리를 위한 고전압 장치 역시 저전압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1단 제작·점검·운반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안에 발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야구장 태양광·LED조명 추진될까

불편위치 변경 등 TF팀 회의 중앙부문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날 회의를 통해 외야 좌우 끝 부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관련 시설과 심판실, 카메라 중계실, 인터뷰실, 사진기자실은 기아 타이거즈 측이 요구한 대로 일부 시설 위치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날 경우 지정석 129석과 내야 테이블석 8석 등 137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태양열과 경기장 조명을 LED 조명으로 100%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현재 공사비의 약 2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데다 LED

전남도 청렴도 제고 ‘묘수찾기’

담양서 워크숍 공무원 비리 사건이 꼬리를 몰고 이어지고 청렴도는 전국 꼴찌에 머물고 있는 전남도가 고민에 빠졌다. 직원 의식 개혁 및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수립해 내년 청렴도 평

소자 수명이 짧은 점이 약점으로 제시돼 태양열, LED 조명 100%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붕 전체에 태양광 설비 설치 부분도 논의됐지만, 약 90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설비 적용을 위해서는 구조보강과 건축 예비실 확보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각계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다”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광주 새 야구장 건립에 앞서 많은 의견을 들어 시민을 위한 야구장으로 건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代 이은 ‘장도장’

광양 박용기씨 아들 박종군씨 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은 최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회의를 거쳐 중요 무형문화재 60호인 장도장(粧刀匠) 보유자로 광양시 거주 박종군(49) 씨를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중요무형문화재 6호 통영오광대과 79호 발달 보유

자로 경남 통영시 거주 김홍종(62) 씨와 서울 성북구 거주 조영숙(72) 씨를 각각 인정 예고했다.

이번 보유자 인정 및 인정예고는 문화재청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인정제도를 점수제로 바꾼 이후에 처음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장도장은 절개를 상징하는 칼인 장도를 전문 제작하는 장인이다. 보유자 박종군 씨는 장도 명예보유자인 박용기의 아들로 일찍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장도를 제작해 이번에 대를 이어 보유자가 됐다. 공예분야에서 부자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道-베트남 다농성 자원개발 MOU 완도군, 송년회 대신 불우시설 위문

전남도는 해외 자원확보 사업의 하나로 베트남 다농성과 자원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해각서 내용은 양 지자체간 무역과 관광산업 투자 증진, 농업·축산·농산물의 가공 기술 협력, 농업용 토지 임대, 영농지원 지원 등이다.

전남도 출자기업인 ㈜전남사료와 목포도시가스는 공동 투자해 설립한 베트남 현지농업법인(MJ AGRI VINA CO.)을 통해 4000ha 규모의 농경지를 확보, 옥수수와 사탕수수 재배에 나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완도군이 송년회 대신 불우시설을 찾아 나눔을 실천, 눈길을 끌었다.

완도군은 19일 올해 마지막 실과소장과 읍면장 회의의 간단하게 끝내고 김종식 군수, 이진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들이 완도전문요양원, 청해요양원, 늘 푸른 집, 생수의 집을 찾았다. 이들은 송년회 비용으로 산 쌀 20가마(20kg 들이)와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종식 군수는 20일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복지시설을 찾는 목지가 발길이 끊겼다”면서 “이번 송년회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예약접수 중 =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 **개강: 1월 2일**

공무원 합격실명회

일시: 12월 27일 오후 2시 30분 (좌석관계로 예약자 선착순입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뱀임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뱀뿔 경력단절

당일 이벤트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무료충정
종합반 교재 5권 무료추첨 5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대한민국 대표 고시학원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www.hanbitgosi.co.kr